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95-308  
<https://doi.org/10.29212/mh.2024..130.2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2023), 492 페이지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70년사』라는 공간사(公刊史)를 발간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국방사부 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연구원이 1년 넘게 집필했다. 12명의 자문위원이 집필 과정에 참여했으며 3명이 공간사를 최종 감수했다. 사실의 정확성과 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고 작은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했다. 그 결과 『한미동맹 70년사』라는 옥동자가 탄생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3년에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동맹 60년사』를 편찬한 바 있다. 『한미동맹 60년사』는 통사(通史) 형식의 공간사였다. 따라서 『한미동맹 70년사』는 기존의 『한미동맹 60년사』에 지난 10년의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덧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집필 방향을 선택했다. 통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70년을 주제별로 편찬한 것이다. 『한미동맹 60년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술하는 종적(縱的) 기록에 치중했다면 『한미동맹 70년사』는 동맹의 역사를 주제별로 기술하는 횡적(橫的) 기록에 중점을 두었다. 부연하면, 『한미동맹 60년사』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한미동맹의 성립 → 한미동맹의 성장 → 한미동맹의 강화 → 한미동맹의 발전 순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한미동맹 70년사』는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 한미동맹과 국방협력 순으로 주제별로 구성했다. 구성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사 형식의 기술과 주제별 기술 형식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떤 형식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형식의 기술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것이 본 공간사를 더 돋보이게 한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사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체제 7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이를 뒷받침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동맹 현안에 따라 갈등과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극복하면서 동맹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공간사의 각 부는 동맹의 부침을 가져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II

공간사 제1부는 한미동맹의 전사(前史)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역사 140여 년의 기원이 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과정과 조약 내용을 둘러싼 미국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해방군으로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원했으나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을 떠났던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남침 때문이었다. 1949년 8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하고, 1950년 2월에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기에 미국의 한국전 참전은 제3차 대전의 위험마저 있었다. 게다가 1950년 1월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라인까지 선포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군이 남침하자 즉각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6개국이 의무부대를 파병하였으며 38개국이 각종 물자를 지원하였다.

전선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자, 정전회담 논의가 급부상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전회담은 1951년 7월에 개최되었다. 포로문제에 대한 유엔군 측의 ‘자유송환’ 주장과 공산군 측의 ‘강제송환’ 주장으로 정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1953년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자 정전회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포로송환협정 체결이 임박했고 뒤따라

정전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보장조치 없이 정전협정만 체결 되면 북한은 또다시 재침(再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없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까지 펼치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경무대에서 가조인식에 이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순서상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이 먼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이 우선했다. 1954년 11월에는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교환한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때 발효되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년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출범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미동맹 관계는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ient) 관계’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국과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한미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닉슨독트린에 의해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하였고 1978년 한미는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탈냉전이 되자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주도(leading)하고 미군은 지원(supporting)하는 역할’로 변한 것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21세기 안보질서가 변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한미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확장

억제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 현재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간사 제1부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압축하여 기술한 것이다. 제1부만 읽어봐도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Ⅲ

공간사 제2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다룬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억제자로서 역할과 지역 안정자로서 역할을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 경제발전의 촉진자로서 역할도 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었고, 한국은 국방비를 경감시켜 그 절약한 국방비를 경제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국군에 대한 유·무형의 전력을 보장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했다. 미국은 유무상 군사원조를 통해 국군의 군사력 발전에 기여했고, 국군은 미군의 전구급(戰區級) 전략·전술 등을 습득하고 훈련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으로 전통적 유교 질서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눈

뜨게 되었고 오랫동안 전통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었던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주둔정책은 행정부마다 조금씩 달랐고 이것이 한국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닉슨독트린으로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은 ‘올곡계획’ 등을 통해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2개의 상반된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미 양국은 유엔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특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군이 한국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이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군에게 10대 임무를 전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공식화하였다.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 전환에 이어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크게 SOFA 개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개선환경과 방위비 분담 등을 다루고 있다. 2차에 걸친 SOFA 개정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현재도 한미간에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이라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SOFA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과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의해 추진되었다. 공사비 12조 원이 투입된, 여의도 면적의 5배인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가 되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이곳에 개청했고 2022년에는 CFC가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 선거 공약을 제시한 이후 무려 30여 년만이었다. 주한미군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연도별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는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SMA가 체결되었다. <표 2-11>을 보면 11차례의 SMA가 요약되어 있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 IV

공간사 제3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형성과 발전을 기술하고 있다. 지휘체제와 협력체제, 그리고 훈련체제가 핵심이나 동맹 현안이 되는 작통권 전환 문제도 기술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의 상반된 결의안 통과가 CFC 창설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CFC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었던 군사적 배경도 중요하다. CFC 창설 이전에 존재했던 한미 제1군단과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가 연합 지휘체제로서 큰 역할을 했다. 공간사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술은 물론 2015년에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에 관해서도 기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합방위체제의 변천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물론 수많은 현재 및 미래의 쟁점들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장관급(SCM)과 합참의장급(MCM)의 회의체와 함께 차관 및 실무자급의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핵협의그룹(NCG) 등이 대표적이다. 전·평시 군수지원을 위한 체제도 존재하는데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과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합연습 및 훈련은 물론 각종 교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공간사는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그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교리를 따르고 모방했던 군정기와 창군기를 거쳐 한국형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도 기술하고 있다.

연합방위체제의 임무는 억제이고 억제 실패 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1993년과 200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북 회담, 6자회담 등을 개최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자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을 열어 둔 채 확장억제라는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미국은 가용한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고 한국은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확장억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3축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공간사는 무려 50쪽에 걸쳐 이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실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외교적인 비핵화 회담과 군사적인 억제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작통권 전환 부분은 6·25전쟁 직후 작전지휘권 이양의 배경과 과정부터 현재 작통권 전환을 위한 평가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 전쟁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될 때는 작전통제권이라는 제한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1978년 CFC의 창설과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통권이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해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평통권)이 한국군으로 전환



됨으로써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부상했다. 2003년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5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수정되었고 현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공간사는 작통권 전환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 기술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V

공간사 제4부는 동맹으로서의 국방협력을 다룬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 정책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협력한 해외 파병 사례와 포괄적 안보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파병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엔 주도하의 평화활동(Peace Operations)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공간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MNF)에 국군이 참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의지와 미국 및 베트남의 요청이 맞물려 이루어졌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파병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해 미국 주도의 동맹관계를 협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국군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한국은 파병된 부대에 대해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얻었다. 공간사는 파병의 경위와 규모, 주월한국군의 작통권 행사 배경, 그리고 한미연합작전까지 기술하고 있다.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하면서

도 작전협조기구를 통해 연합작전을 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 파병이 SCM이라는 협의체 창설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를 더해 준다.

국군이 다국적군에 참여한 사례는 많지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한 것은 1990년의 걸프전, 1992년 소말리아 내전, 2002년의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등이다. 해군수송지원단과 공군수송지원단, 육군의 의료부대와 공병부대 등이 주로 참여했으며 이라크에는 자이툰 부대가 사단급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국적군에 부대 단위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다. <표 4-4>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주도의 다국적군에 국군이 부대 및 개인 단위로 참여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포괄적 안보협력은 재해·재난 대비, 사이버·우주 협력, 방산·기술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재해·재난 대비는 기후환경과 보건안보의 중요성과 한미의 협력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사이버 협력은 사이버 안보의 위협 및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과 사이버 안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연합사이버 훈련 등 한미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우주 협력은 우주를 향한 군의 정책 발전 과정과 한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우주협력협정과 약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우주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황도 기술되어 있다. 방산협력은 방산 협의체와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현황과 방산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을 향한 제3세대 방산협력은 갈 길이 멀다는 점도 기술되어 있다. 주로 방산분야에 국한된 과학기술 협력도 협의체와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다.

재해·재난 대비는 기후와 환경의 차원에서 한미 간의 협력이

본격화되었고, 사이버·우주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유리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기술 분야는 협력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VI

본 공간사는 사료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무려 7개에 달하는 부록을 첨부했다. 그 중에서도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부터 2023년 제23차 KIDD 개최까지 무려 13쪽에 달하는 ‘한미관계 연표’는 압도적이다. 이 연표만 읽어봐도 한미관계 역사를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 합참의장급, 차관급, 그리고 실무자급의 한미안보협의체 개최 현황과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20쪽에 달하는 ‘한미 안보협의체 개최 현황’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현황에서는 한미가 안보 현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정책이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공동비전과 공동선언, 국방협력 지침과 연합방위지침,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한미동맹의 주요 합의문인 ‘한미동맹 주요 합의문 변천 경과’라는 첨부물도 한미동맹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엔사가 작통권을 행사한다는 한미합의의사록과 CFC 창설의 배경이 되는 상반된 유엔총회 결의안 등이 첨부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간에 체결된 조약·각서·약정 목록도 한미동맹 관계사

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60년사』에 빠져 있던 목록이 10개나 추가되었고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무려 30개가 가까운 목록이 포함되어 총 98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약사도 부록에 있다. 언제 어떤 기지들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언제 어떤 기지들이 반환되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군 생활을 오래한 평자의 입장에서든 생소한 이름의 미군 기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공간사는 독자들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와 사진, 그리고 그림 등을 많이 사용했다. 본문에는 39개의 표와 72개의 사진, 그리고 17개 그림이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독자들을 배려했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외국어를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했다. 본 공간사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 독자의 공감대 형성과 가독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VII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자산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이런 하드파워 못지않게 한류로 표현되는 소프트파워도 강하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6·25전쟁이 남긴 잿더미에서 출발했던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었던 국가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창의적이고 근면한 민족정신과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을 만난 덕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리고 서독과 동독은 모두 체제모순과 분단모순의 구조를 가졌지만, 세 나라의 운명은 극명하게 다르다. 자유 진영에 속했던 남베트남은 공산진영의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였고, 자유진영의 서독은 공산진영의 동독을 흡수통일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체제모순과 분단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나라 운명의 중심축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과 파리 평화협정을 통하여 남베트남을 버렸으나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한미동맹이 혼란을 줄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이 진행되는 동안 정전체제가 사라지고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대사는 미국과 함께하는 역사였다. 그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미동맹 70년사』는 단순히 한미동맹의 70년사일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70년 사이자 한국의 현대사이기도 하다. 본 공간사는 일반독자, 정책수립자, 그리고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독자는 크게는 한국 현대사와 한미 역사를 이해하고, 좁게는 한미동맹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수립자는 70년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쟁점에 대해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다양한 교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에게 본 공간사는 보물과 같을 것이다. 본 공간사는 논문의 주제처럼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1차 자료 목록 등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공간사는 상당히 쉬운 문체(文體)로 쓰였기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제1부를 읽은 뒤 해당 부분만 찾아 읽어도 좋다. 『한미동맹 70년사』가 두루 읽히면서 여러 저술에서 많이 인용되기를 기대한다.